



**애덤 스미스**  
김광수 지음

**‘보이지 않는 손’은 정의**

‘인문고전 깊이읽기’는 고전을 다 읽어 볼 시간이 없는 독자, 읽고 싶지만 망설이는 독자를 위한 충실한 해설서다. 한글사가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인문 고전 교양서는 동서양의 철학을 넘어 문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이번에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광수 교수가 펴낸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를 처음으로 ‘포착’한 사상가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다룬다.

저자가 정리한 애덤 스미스는 ‘융합학문’의 시초다. 작금의 ‘통섭’ ‘융합’ 열풍이 사실은 애덤 스미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경험세계와 본질세계의 통섭을 주장했는데 요즘으로 치면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은 ‘정의’를 뜻하는 것으로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이 공정한 처우와 합당한 몫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길사·1만7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달맞이언덕의 안개**  
김성중 지음

**25편의 ‘추리문학 대부’ 상상력**

‘여명의 눈동자’ ‘최후의 증인’ 등을 펴냈던 한국 추리문학의 대가 김성중이 신작 ‘달맞이언덕의 안개’를 펴냈다. 작가는 해운대 달맞이언덕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특유의 하드보일드한 문체로 그려낸다.

츄츄한 스토리라인, 충격적 반전, 팽팽한 긴장감이 특징인 그의 소설은 이번에도 25편의 이야기 속에서 유감없이 발휘된다. 미스터리한 살인사건, 원전 폭발 사고, 괴짜의 일상을 다룬 소설은 하나하나가 짜릿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추리뿐 아니라 공포와 희극, 역사적 이야기와 수수께끼, 로맨스 같은 다양한 요소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25편의 소설에는 추리문학의 대부라는 별칭답게 김성중의 장기간 탁월한 감각과 상상력이 녹아 있다. 인간이면 누구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욕망과 자유가 ‘안개’를 배경으로 새롭게 변주된다. <새움·1만3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담배 끊고 쓴 애연가들을 위한 悲歌**

**담배는 숭고하다**

리처드 클라인 지음



흡연가나 비흡연가나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책이 나왔다. ‘담배는 숭고하다’.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담배를 표현한 어떤 문장이나 수사보다 이색적이다. 아니 무거운데다 호기심을 자극한다. 도대체 담배가 숭고할 수가 있는가? ‘존엄하고 거룩하다’는 뜻을 지닌 ‘숭고’라는 단어의 의미를 오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루이 14세, 나폴레옹, 히틀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카테고리는 의외다. 바로 흡연을 경멸하고 담배를 악마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히틀러의 경우만 보더라도 상상을 넘는다. 그는 “독일 여성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이라는 표지판을 내걸었다. 단 한 사람 무슬리니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앞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했다는 것이다.

잠시 3개월 전으로 돌아가보자. 새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담배값이 무려 80%나 인상된다는

소식에 흡연가들은 망연자실했다. 당연히 삼짱돈을 털어 지난해 연말부터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다. 다소 인상 시기가 늦었던 외국산 담배는 매출이 급증해 귀하신 존재가 되었다. 이후 쟁여둔 담배가 동이 나기 시작하면서는 전자 담배, 봉초 담배 같은 대안 상품이 관심을 끌었다.

미국 코넬 대학교 불문과 교수인 리처드 클라인이 담배의 ‘미(美)’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담배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 비평서인 ‘담배는 숭고하다’는 문학과 철학, 정신분석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담배와 흡연을 조명한다.

제목 ‘담배는 숭고하다’에서 ‘숭고하다’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게서 빌려왔다. 칸트는 ‘부정적인 경험, 충격, 죽음 등 순간순간의 상황을 포함하는 심미적인 만족을 숭고’라고 불렀다.

지구상에는 대략 10억 명이 가까운 이들이 담배를 피운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담배가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할 만큼 애연가였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맛은 쓸쓸한데다 몸에도 해로운 담배를 사랑하는 것일까. 저자의 답은 간단하다. 담배는 숭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흡연가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눈치 채다. 예전과 몸이 다르다는 것과 담배에 독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해도 애연가들은 담배를 끊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끊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담배는 고통과 분노의 순간을 누그러뜨리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스트레스 해소에 담배만한 게 없다는 의미다. 저자는 이를 담배가 지

닌 다양한 유익에 결부시킨다.

또한 저자는 담배의 가치가 좋지 못한 효과만으로 규정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왜 도덕적으로 선하고 미적인 판단 기준으로 ‘건강’만을 내세우느냐는 것이다. ‘건강주의’가 산업화의 약탈을 감추고 어느 한쪽의 이익을 조정해왔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담배 재배자들에게 보조금과 장려금을 주면서 생산을 장려한다. 그리고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금연 캠페인을 벌인다. 다른 나라에 자국의 담배 수입을 강요하기까지 한다.

비단 미국만의 문제인가. 우리나라도 금연 정책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금을 걷는다는 비판이 높다.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에 경고 그림을 진즉 삼입했어야 하는데, 국회는 아직까지 허송세월이다.

물론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저자는 담배를 찬양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자신은 금연에 성공했다. 책은 담배의 유익을 부각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금연을 목적으로 고안한 고도의 전략에 다름없다.

저자의 주장은 간단하다. ‘흡연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연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보다 금연으로 야기되는 많은 상실감을 속고 하다 보면 대체물을 찾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제 담배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할 시간이다. 그래도 담배에 불을 붙일 것인가? 아니면 담배가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인정해야 하는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페이퍼로드·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인생의 ‘성패’ 좌우하는 영어의 모든 것**



**세계사를 품은 영어 이야기**  
필립 구든 지음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언어다. 아무리 부정해도 성공의 많은 부분을 영어가 차지하는 게 사실이다. 대학입시, 취업, 승진 등 인생에 있어 중요한 관문마다 영어는 성패를 좌우한다.

그렇다면 영어라는 언어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문법과 맞춤법은

어떻게 정해졌으며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는 언어로 군림하게 되었을까?

다수의 언어 관련 책을 펴냈고 범조설가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필립 구든이 펴낸 ‘세계사를 품은 영어’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영어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지구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언어 중에 왜 영어가 가장 영향력이 큰 언어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는지 분석한다.

영어는 중세 초기 앵글로색슨인이 들 여운 게르만계 언어에서 시작되어 11세기 이후에는 노르만 프랑수아어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다 중세 후기에 이르러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약 3억8000만 명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 제2언

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6억 명에 이른다. 저자가 보기에 영어의 성공 요인은 높은 개방성과 수용력이다. 다소 맞춤법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단순하고 유연한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좋다’라는 뜻을 지닌 ‘OK’는 좋은 사례다. 이 단어는 명사에서부터 동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품사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화를 매끄럽게 잇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인다.

저자는 영어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두루 살펴보고 영어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과거로부터 탐색한다. 영어를 언어학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히니와이즈·1만5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자본주의에서 은폐되어야만 했던 진실**



**기억의 문**  
주원규 지음

광주일보 신춘문예와 한겨레문학상 수상 작가인 주원규의 새 장편 ‘기억의 문’이 출간됐다. 소설은 기억 전달이란 특수한 능력을 가진 아이 조민과 그를 뒤쫓는 택시 운전자 정인, 경찰 재우, 비밀단체 ‘A’의 각기 다른 욕망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폐되어야만 했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설 속 인물들과 단체는 대부분 과거를 은폐하고 망각하며 돌아보지 않는다. 그중 유독 어린 시절의 기억을 회피하는 사람이 주인공 정인이다. 어느 날 옆집 아이 조민을 만나면서 물어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 정인은 과거에 가까워지기위해 구형소나타 택시의 속도계를 시속 200km까지 끌어올리며 거대한 지옥도로 묘사되는 대한민국의 곳곳을 누빈다.

‘이야기를 잔뜩 가진 낯선 작가’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작가는 이번에도 특유의 압도적인 서사에 추리소설 기법을 더해 이야기의 터널속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한겨레출판·1만4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라다이스**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